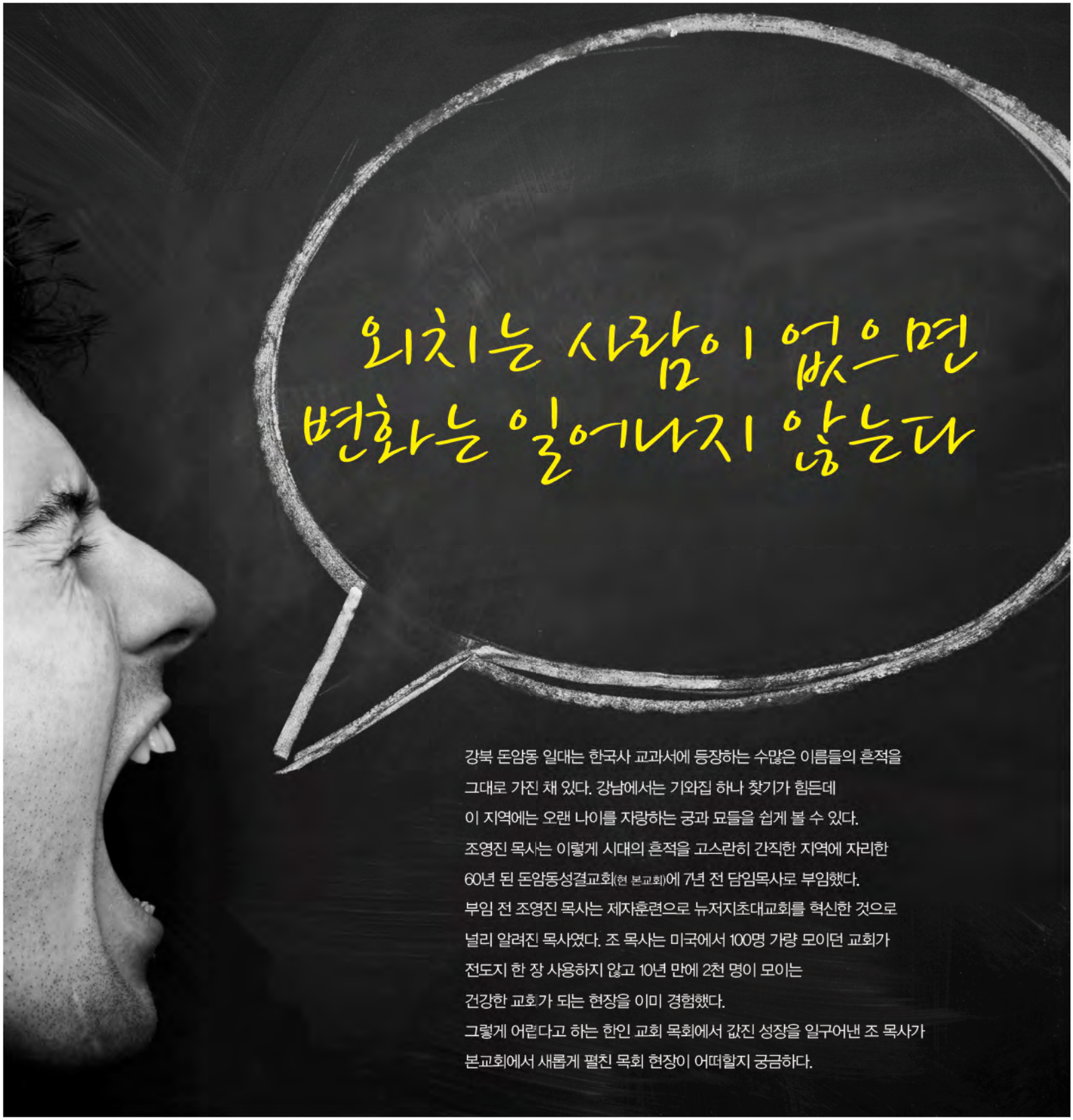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강북 돈암동 일대는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의 흔적을
그대로 가진 채 있다. 강남에서는 기와집 하나 찾기가 힘든데
이 지역에는 오랜 나이를 자랑하는 궁과 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영진 목사는 이렇게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에 자리한
60년 된 돈암동성결교회(현 본교회)에 7년 전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부임 전 조영진 목사는 제자훈련으로 뉴저지초대교회를 혁신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목사였다. 조 목사는 미국에서 100명 가량 모이던 교회가
전도지 한 장 사용하지 않고 10년 만에 2천 명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현장을 이미 경험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한인 교회 목회에서 값진 성장을 일구어낸 조 목사가
본교회에서 새롭게 펼친 목회 현장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두 번의 CAL세미나

제자훈련을 기본으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고백을 듣는다. 조영진 목사 역시 미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국까지 와서 16기 CAL세미나를 참석하고 제자훈련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교역자 신분이어서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바로 제자훈련을 시도해 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담당했던 양육반에서 훈련의 요소를 실험해 보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얼마 후 조 목사는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담임목회를 시작했다. 당시 교회는 여러 차례 목회자가 바뀌면서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상황이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1년간 사역을 하고 나니 30여 명의 숫자적인 성장도 경험했다. 하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은 계속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자훈련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미주 CAL세미나(3기)에 참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굳이 두 번씩이나 세미나를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조 목사는 이와 같이 답변한다.

"CAL세미나가 아니었다면 미국과 이곳에서의 목회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 세미나는 정말로 쇼킹이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교회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두 번째 CAL세미나는 분명 첫 번째 참석했던 CAL세미나와 같은 강의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옥한흠 목사님의 강의가 마치 나 한 사람만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조영진 목사는 한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뉴저지초대교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 본교회(과거 돈암동성결교회)로 부르셨다.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현장을 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뢰가 관건이다

조영진 목사가 부임한 지난 2005년 본교회(당시 돈암동성결교회)는 35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었고, 120억 상당의 교회 건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의 나이만큼이나 지긋한 나이를 가진 이들이었다. 30대와 40대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조 목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훈련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민 교회에서는 100여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본교회는 그 3배에 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회의 어려움은 숫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부임 초기 교회에는 이미 훈련을 받을 만큼

조영진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 Div.)를 졸업했다.
이후 NYTS D.Min과정을 수료하고, 전 OM KAM 이사와 뉴저지초대교회 담임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담당목사를 거쳐 현재 본(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망치를 줄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들 것이다"라는 명언처럼
저는 강단이나 강단 아래에서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할 곳이 교회의 안이 아닌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하는 자존심에서 기인한 훈련에 대한 교인들의 거부반응이 만연해 있었고, 또 훈련을 새롭게 시킬 만큼 충분히 양육된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뉴저지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신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확신이었다. 단지 훈련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조 목사가 노력한 부분은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사실 신뢰를 얻는 것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형성되는 것이다. 조 목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계산하면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산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거룩함은 모든 것을 드리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사장처럼 여겨졌던 목회자가 점점 목자라고 여겨지기 시작했다. 주일에도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과 함께 섞여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 모든 성도들이 점점 조 목사를 좋아하여 반기게 되고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다.

조 목사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신뢰를 쌓아감과 동시에 제자훈련의 기반을 닦을 교회의 양육 과정을 재정비했다. 기본 틀은 '일대일 양육'과 '큐티'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 목사에게서 발견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제자훈련을 위해서 목회자 자신을 준비시킨 것이다.

평신도에게 배우는 제자훈련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일까? 많은 답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영진 목사는 그렇게 자신을 더 나은 제자훈련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평신도에게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시 본교회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수료한 집사 한 사람이 있었다. 조 목사는 그 집사와 함께 다시 자신의 제자훈련을 점검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조 목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그 집사님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받고 김승욱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에도 제자훈련을 받았던 분입니다. 섬김을 통해서도 제자훈련 수료자라는 느낌이 팍 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의 제자훈련과 다른 제자훈련 교회의 제자훈련과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출하고 점검받았던 과제물을 일일이 뒤지면서 다시 저의 제자훈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 방식과 설교 성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익숙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서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 부분에서는 故 옥한흠 목사도 마찬가지였다. 옥한흠 목사가 처음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았을 때, 서울대 공대를 다니던 방선기 목사에게 네비게이토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에게 자신을 가르쳐줄 것을 부탁했다. 지도 교역자의 신분으로서 일개 대학생에게 선교단체 제자훈련의 방식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려는 자세는 학생으로서만 아니라 교사로서도 훌륭한 자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 목회자는 먼저 자신이 훈련생이 될 필요가 있다.

외쳐야 변화한다

앞서 말했듯이 돈암동 지역은 변화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지역을 닮아서일까. 교회도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아주 일부만 실시하고 있었다. 지역 문화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당시 교회가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재정에 의한 압박으로 교회 내부와 외부 사역을 활발하게 펼칠 수 없었던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반면에 많은 교인들은 내심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조영진 목사를 초청한 것이기도 했다. 변화를 위해서 교단 내부의 목회자보다는 밖에서 찾아보자고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본교회가 속한 지역은 서울 안에 있지만,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사역의 기회가 적었다. 그래서 조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교회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1년에 20~30가지씩 해보았습니다. 쪽방촌 사역, 연탄 나르기, 헌혈, 탈북자 섬김, 독거노인 사역, 장학금 보내는 일, 인재를 유학 보내는 일 등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사역들임에도 결국 우리 교회는 다 감당했습니다."

사실 행사를 한다는 것은 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350명 출석하는 교회가 120억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건축으로 인한 이자 부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니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행사들을 치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조 목사가 교회 앞에 비전을 공개하고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망치를 줄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들 것이다"라는 명언처럼 말이다.

"변화라든지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변화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이나 강단 아래에서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할 곳이 교회의 안이 아닌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밖을 도와주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조 목사가 본교회 성도들과 나눈 비전은 세상의 섬김과 변화만이 아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인격을 가지는 제자의 비전이었다.

조영진 목사는 제자훈련 1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뉴저지초대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도 부임 후 4년을 기다려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제자훈련을 도입했다.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시작한 훈련이었던 것이다.

"제자훈련은 FM으로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충분히 신뢰를 받아야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교회와 함께 성장해서 출석 연수가 40~50년 된 성도들이 즐비한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본교회는 교회 이름을 바꾸기까지 2년이 걸렸다. 그만큼 조 목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시작하기까지는 4년이 걸렸다.

조영진 목사는 제자훈련 1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뉴저지초대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도 부임 후 4년을 기다려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제자훈련을 도입했다.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시작한 훈련이었던 것이다.

남자 제자훈련 1기는 본교회 안에 제자훈련이 은혜롭고 큰 변화가 있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소문을 남겼다. 12명이 시작한 훈련은 결국 9명만이 수료할 수 있었다. 정성을 들여서 시작한 훈련인 만큼 많은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3명이 탈락한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조 목사의 제자훈련에 대한 기준이 철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시작된 여자 1기는 지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1기 수료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자반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웃음). 마침 미국에서 3개월 머물러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목사님과의 한 번의 전화 통화에 순순히 한다고 대답을 하게 되었지요."(유순남 권사)

"사실 저는 제가 바뀔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는 신앙생활인데 진짜 성도로 변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짤리지는 않았습니다."(김기현 집사)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과 봐주기는 없다. 그것은 조 목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기도 하다.

조 목사는 미주 CAL세미나에서 4번 제자훈련 간증을 했었다. 그 간증의 핵심을 요약하면 '제자훈련은 FM으로 하라'는 것이다. 교과서대로 하지 않고 변형하거나, 훈련생의 상황이 어렵다고 과제물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 목사의 제자훈련 방침이다.

당연히 훈련생들은 힘들어하고 그만 두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모난 부분이 깎이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본교회 훈련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자.

"훈련 초기 집에서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저를 보고 남편은 '제자가 잘~한다'는 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부싸움도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수료를 할 즈음 남편은 저보고 '신학교를 가도 되겠다'는 평가를 하더군요. 훈련 내용이 그만큼 절 변화시킨 것 같아요."(김기현 집사)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때론 같은 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반복하면서 그 의도를 깨닫게 되더군요. 특히 기도제목을 150가지 써 가야 하는 숙제는 저의 기도의 지경을 훨씬 넓게 확장해 주었습니다."(유순남 권사)

제자훈련에 성공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무용담으로 말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성도들의 현실에 맞게 상황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칙 고수이다.

포기해야 할 것과 얻게 되는 것

제자훈련 목회는 훈련생인 성도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의 요소 가운데 지도자의 모범이 있다. 지도자들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자신이 먼저 성장하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역자는 먼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옥한흠 목사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맹세를 하나님과 훈련생 앞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조영진 목사는 우선 자신이 줄일 수 있는 영역인 노회와 총회 관련 일들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제자훈련을 해야 그 훈련으로 인해서 스케줄이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일종의 시간과의 싸움이죠. 지금도 외부에서 많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만, 저의 일정에는 항상 제자훈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는 소위 유명해져서 많은 교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열망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작은 목자가 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소수의 성도에게 목회자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과정이므로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열매는 없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일보다 덜 중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이를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에 대부분의 목회자는 양적 성장에 치중된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에 매달리거나, 손쉽게 부흥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조 목사가 제자훈련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목회 스케줄을 조절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제자훈련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목회자라는 의미이다.

제자훈련에서 쉼을 얻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면 제자훈련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조영진 목사는 제자훈련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한다.

"목회에는 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시간에는 온전히 말씀과 영혼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설교도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 자신이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조 목사에게 제자훈련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쉼의 시간이다. 오히려 다른 목회적 요소는 자신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노동일 수 있지만,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목회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조 목사에게 제자훈련이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목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목회를 '사람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조 목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본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 사역들은 대부분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어린이도서관, 꿈터지역아동센터, 지역청소년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쪽방촌 사역, 북한돕기, 장학사업 등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저는 스스로를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뛰고 트로피를 받는 스타가 아닙니다. 코치는 경기에서 이기고 스타가 세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목회의 현장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껏 뛰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코치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스타플레이어가 코치인 나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 목사의 목회철학 또한 제자훈련 목회의 정도를 걷는 교역자에게서 발견되는 정신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빛내고 싶어 한다. 공적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제자훈련 정신은 목회자가 훈련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죄를 이기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제자훈련에서 동역자를 얻다

이쯤에서 제자훈련이라는 훈련소를 통해 배출된 본교회의 스타플레이어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충분한 양육 과정을 거치고 FM 제자훈련을 마친 평신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인터뷰에 참여한 유순남 권사와 김기현 집사에게 어떤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저희 교회에는 현재 40여 개의 순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그룹을 인도하는 순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미국으로 도망가서 제자훈련을 피해보려는 생각까지 했던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신기해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 팀장으로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훈련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순장사역을 하고 있고, 무용 전공을 했던 것을 활용해서 장년부 워십댄스팀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10개의 큐티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큐티 나눔 운동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제자훈련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이렇게 본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 사역들은 대부분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어린이도서관, 꿈터지역아동센터, 지역청소년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쪽방촌 사역, 북한돕기, 장학사업 등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본교회는 각 순과 기관별로 수많은 아웃리치를 진행해 왔다. 이 모든 사역들은 본교회의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비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라는 엔진이 없이 불가능했다.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불씨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일은 이제 범교회적인 운동이 되었다. 본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아웃리치를 가게 된다.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간다. 공동체에서 가고, 순에서도 간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과 부활주일과 같은 교회 절기에는 항상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추석, 설 명절 등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쪽방촌으로 특별히 휴가를 내어 찾아가는 팀들도 있다. 이러한 활발한 섬김으로 인해 본교회에서는 아웃리치를 가지 않으면 간첩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될 정도이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훈련된 평신도들이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가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성도를 향해 제자라고 불러준다는 것을 우리는 본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성북경찰서의 유도장에서 열린 전도집회에서 시작된 돈암동성결교회. 60년 간 변화를 거부하며 전통을 고수하려는 지역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가던 교회가 조영진 목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득 찬 제자훈련 목회자가 부임함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본이 되고,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지금의 본교회로 탈바꿈했다.

본교회는 350여 명 모이던 교회에서 지금은 14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조 목사는 그 중심에 제자훈련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비단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밖을 도와주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본교회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 30~40대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던 곳에 이제는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이 넘쳐난다. 교회는 역사가 더해 가지만 점점 젊은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준비된 평신도 리더들과 조영진 목사가 함께 이루어 갈 본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본다. 〈김영현 목사〉